

사랑의열매

2020 10

“코로나19도 이겨내는
명절의 온정을 저마다 가득히”







덕양행신종합사회복지관 직원들

사랑의열매 홈페이지
chest.or.kr



사랑의열매 공식 SNS

-  인스타그램 @fruits_of_love  페이스북 @chestkorea
-  블로그 blog.naver.com/nanum_in
-  유튜브 오지랴(oz.lab)_유튜브에서 '오지랴'를 검색하세요.

PLUS EVENT

**책 뒤표지에 사랑의열매가 숨어 있습니다.
어디에 사랑의열매가 숨어 있을까요?**

참여방법 숨은 그림을 찾아 인증샷을 본인의 SNS에 올려주세요.
해시태그를 달고 사랑의열매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를 팔로우하시면
당첨 확률이 높아집니다.

필수 해시태그 #사랑의열매 #모두의나눔 #숨은열매찾기

당첨자 선정 인증샷을 올려주신 분을 선정해 커피 기프트콘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에게는 개별 연락드립니다.

● 인터뷰와 사진 촬영은 발열 검사와 소독을 마친 뒤 진행했으며, 사진 촬영 전후와 인터뷰 시 마스크를 착용했습니다.

ssjami_0905

당신의 손가락이 한 생명을 앗아가지 않도록

#영광여고 #스마일BOOK
#사이버폭력예방 #푸른코끼리
#푸른나무재단 #스마일북 #삼성
#사랑의열매 #사이버폭력

jiseong_yi

보호종료 아동은 #내친구다
분홍 #수국의 꽃말 처녀의꿈 :)
해시태그 캠페인 한명이라도
더 참여할수록
롬앤이 1,000원 더 기부합니다!
#참여부탁드려요

#notendbutand #해시태그캠페인
#20 #twenty #보호종료아동 #롬앤
#romanddonation #사랑의열매
#커뮤니티케어센터 #해시태그
#hashtag #romand #스무살
#끝이아닌새로운시작

miae_mimi

사랑의열매에 기부하고 받은 굿즈들.
안마봉 넘 귀엽다.

#기부
#사랑의열매
#크라우드펀딩
#안마봉
#키링
#좋아요

sotong_joong21

로미와 망원, 성산, 상암 배달 중.
3시에 시작했는데, 6시 다 되어 끝날
듯^^;;
동선이 아주 그냥~ 넓어요..ㅎㅎ

#추석나눔 #가가호호 #사회복지사

#나눔태그

#나눔스타그램 캠페인

세상을 따뜻한 온기로 가득하게 만들어요!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는 모습, 일상의 따뜻한 사랑과 온정을 느낄 수 있는 모습을 담아주세요.

참여방법 일상의 따뜻한 모습.

나눔과 봉사 현장, 또는 일상에서 만난 사랑의열매를 SNS에 올려주시고 해시태그를 달아주세요.

필수 해시태그 #나눔스타그램 #사랑의열매

기타 해시태그 #봉사 #기부 #나눔

당첨자 선정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에 해시태그와 함께 사진을 올려주시는 분을 선정해 커피 기프트콘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에게는 개별 연락드립니다.

CONTENTS



사랑의열매

vol. 162 2020. 10

발행인 예종석

발행일 2020년 10월 / 통권 162호

발행처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21길
39 사랑의열매회관 6층

만든이 사랑의열매 마케팅본부

구독안내 전화 02-6262-3000

팩스 02-6262-3100

홈페이지 www.chest.or.kr

등록일 2003년 5월 13일

등록번호 서울중, 라00605

기획, 편집디자인

한국경제매거진(주) 02-360-4856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도서잡지윤리강령 및
잡지윤리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지에 게재된 기사나 사진 등 시각 자료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사전 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의
전재·복제를 금합니다.

이 책의 내용은 발행처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연간 기획

모두의 나눔_C-SDGs 연계 배분 사업 ㉠

경제적 빈곤 퇴치&

영양 및 급식 지원/ 기아 종식

04 내일의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오늘을 함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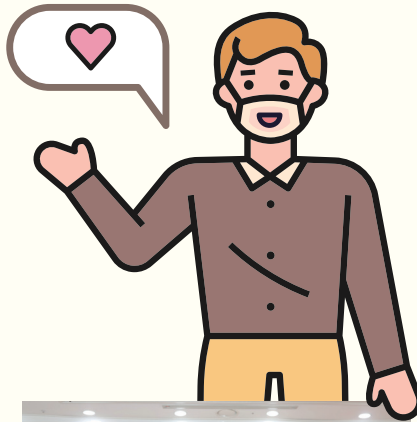


10 커버스토리

"코로나19도 이겨내는
명절의 온정을 가득히"

14 내 인생의 한마디

기부라는 꿈 이론
패션 그룹 (주)오아이 스튜디오
정예슬 대표



18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교통사고로 잃은 딸 위해 기부한
아버지 조동현 님

20 **세상을 바꾸는 희망 풍경**
손길만 스쳐도 신박한 정리
삶도, 공간도 말끔하게 변신

24 **착한기업**
사회적 책임에 실천을 더하는
근로복지공단

28 **취약 계층 재무 컨설팅 지원 사업**
금융 주치의, 사랑의 금융 119
처방으로 내일을 꿈꾸다

30 **사랑의 열매 아카데미**
지역 비영리 기관의 성장을 돕는
새로운 도전

32 **착한동네**
24시간이 모자란 상상 이상의 도시
인천

36 **문화로 보는 나눔**
집에서 즐기는 온라인 지역 축제

38 **함께편딩**
사랑의 열매 크라우드펀딩

40 **전국 지회 뉴스**

51 **이달의 아너**

52 **독자 페이지**

내일의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오늘을 함께합니다

10월 17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빈곤 퇴치의 날'이다. 우리나라 역시 빈곤 문제 앞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방학 때면 끼니를 걱정하는 아이들이 있으며, 무료 급식소에서 먹는 한 끼로 하루를 보내는 사람도 있다.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하지 못한다”는 말이 있듯 빈곤 퇴치는 아주 어려운 문제다. 하지만 사랑의열매는 사람답게 살기 위한 최소한의 환경을 누구나 갖출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통해 노력하고 있다. 글이선희 사진각나눔기관 일러스트조성함



2020년에는 매달 사랑의열매
지속가능발전목표인 C-SDGs의 16개 목표 중
하나를 선정해 주요 배분 사업과 함께 소개한다.
이번 달은 1번 경제적 빈곤 퇴치와 2번 영양 및
급식 지원/기아 종식 관련한 사업을 다룬다.



- 1 푸드 트럭 '밥 먹고 놀자'에서 진행되는 만들기 활동
- 2 아동·청소년이 직접 조리할 수 있는 한 그릇 특식 재료 지원 '나도 요리사'
- 3 가정을 방문하는 멘토링 활동 '푸드맘이 간다'
- 4 푸드맘이 직접 만드는 엄마 손맛 밀반찬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마을 만들기

군포시주몽종합사회복지관은 삼성전자의 후원과 사랑의열매의 지원으로 군포 내 결식·돌봄 사각 지대에 놓인 아동·청소년을 위해 푸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다. 단순히 음식을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따뜻한 엄마의 마음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한다. 특히 음식을 매개로 한 멘토링 프로그램 '푸드맘이 간다'가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푸드맘(멘토맘)이 가정을 방문해 아동·청소년들과 함께 식사하며 정서적 안정감을 주고, 위생 및 생활환경을 점검한다. 그 외에도 푸드맘이 직접 조리한 밀반찬 지원, 아동·청소년이 직접 조리할 수 있는 특식 재료 지원, 주 1회 저녁 도시락 무상 배분 및 놀이 문화 활동 지원을 하는 맘미아 푸드 트럭 '밥 먹고 놀자' 등을 진행해왔다. 우리 마을의 아이들은 우리 손으로 돌본다는 마을 공동체의 좋은 본보기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1 자원봉사에 나선 대학생들이 무안 양파 농가에서 양파를 수확하는 모습
2 전남 지역의 부족한 일손을 돕는 자원봉사자들
3, 4 농가로부터 수확물 일부를 기부받아 저소득층에 전달한다.

전남 지역 농산물 기부 식품에 대한 모델화 ‘나누어드림’

지역사회에서 기부한 식품을 결식이 우려되는 계층에 무료로 제공하는 푸드뱅크 사업이 이제 제법 자리를 잡았다. 하지만 후원 물품 대부분 유통기한이 임박하거나 가공식품이 많아 아쉬움이 컸다. 이에 전라남도사회복지협의회는 삼성전자 나눔과꿈 사업의 일환으로 사랑의열매의 지원을 받아 2019년부터 사업을 진행 중이다. 전남 지역의 인구 고령화 및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자원봉사자를 통해 일손을 지원하고, 수확물 일부를 기부받아 저소득층에 전달하는 방식이다. 바로 생산한 신선한 식품을 제공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식생활을 개선하고, 영양분 높은 음식을 섭취해 건강한 삶으로 탈바꿈하는 계기를 마련해준다.



더불어 사는 마을 만들기 '해피투게더'

인천 만수6동은 고령 노인 인구 증가, 지속적인 저소득 인구 유입 등 지역 특성으로 인해 다양한 문제가 대두하고 있다. 이에 만수6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사랑의열매 지원을 받아 관내 어려운 계층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결식, 가족 기능 약화 등을 지역 주민과 함께 해결해나가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밀반찬 지원 및 식생활 모니터링, 사랑의 여름 김치 나누기, 명절 음식 나누기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과 서비스를 제공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했다. 그 외에도 효나들이, 청소년 문화 체험, 장학금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진행해왔다. 이런 노력이 더해져 소외된 이웃이 아닌, 우리의 이웃으로 받아들이는 긍정적 인식 변화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 5 어르신들과 함께 한 꽃구경 효나들이
- 6 관내 아동들을 위한 어린이날 행사
- 7 어르신 181세대에 전달한 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직접 담근 여름 김치





건강한 여름 나기 지원 사업 '사랑 나누고 행복 더하기'

코로나19 확산으로 올해 여름에는 많은 복지관과 무더위 쉼터가 휴관했다. 집의 냉방 시설이 취약해 그곳에서 폭염을 피하던 어르신들의 건강이 염려되는 상황이었다.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는 신한생명 후원과 사랑의열매 지원으로 지난 6·7월 두 달 동안 혹서기 키트를 제작해 47개소 1,880명의 어르신에게 전달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혹서기에 취약한 어르신들이 여름을 건강하게 잘 보낼 수 있도록 키트에는 여름 이불과 생필품, 덴탈 마스크 등 위생용품까지 담았다. 또 직접 가정을 방문해 키트를 전달하며 어르신들의 안전을 확인하고, 고립감 경감에도 신경을 썼다.



- 1 여름 이불 및 생필품 등 7종이 담긴 혹서기 키트를 받은 어르신
- 2 김해시종합사회 복지관의 전달식 모습
- 3 생필품 등이 담긴 혹서기 키트
- 4 보령노인종합복지관의 전달식 모습



무료 급식을 준비하는 자원봉사자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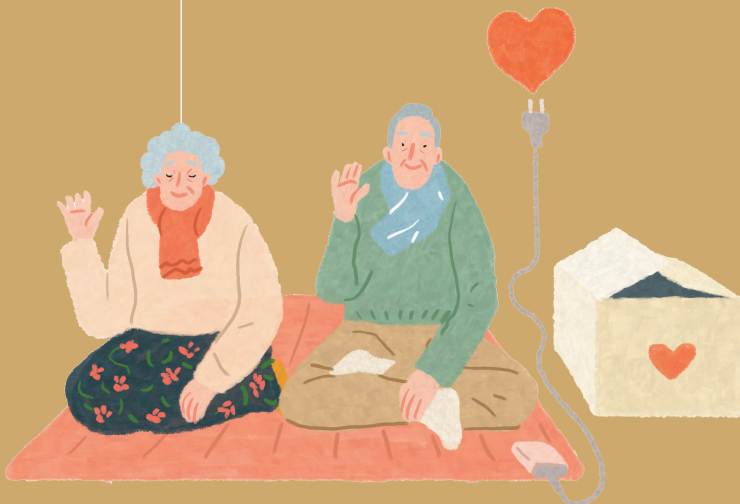
노숙인·쪽방 주민·독거노인 무료 급식 사업

KB국민은행이 후원하고 사랑의열매가 지원하며, 사단법인 참좋은친구들이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결식이 우려되는 서울역 주변 노숙인과 쪽방 주민을 대상으로 하루 2회 무료 급식을 제공하고 있다. 위생적이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균

형 잡힌 식단을 통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신경 쓴다. 지난해 하루 평균 337명이 찾을 정도로 많은 이의 건강한 한 끼를 책임지고 있다. 그 외에도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으로 무료 진료, 무료 이·미용 등도 진행해왔으나 올해는 코로나 19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월동 물품 및 난방 연료 지원 사업 '덕분에 경복은 따시니다'

지난해 겨울, 경상북도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우규민 아너의 후원과 사랑의열매 지원으로 어르신들의 따뜻한 겨울을 만드는 사업을 진행했다. 동절기 난방비 지출이 부담스러운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 어르신 114세대에 연료 및 월동 물품을 지원했다. 32세대에는 연탄 400장 등 난방 연료를, 10세대에는 온수 또는 전기 매트 등 보조 난방을, 72세대엔 외투와 내의 또는 이불 세트 등을 전달했다. ❀





경기북부사업본부에서 진행하는 추석맞이 취약 계층 및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행사 기념 촬영 모습. 이재준 고양시장과 고양시 각 사회복지관 관장 등이 참석했다.

사랑의열매,
전국적으로 추석맞이
명절 지원에 나섰다

“코로나19도 이겨내는 명절의 온정을 가득히”

사랑의열매가 추석을 맞아 어려운 이웃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대대적인 지원에 나섰다. 현금과 현물뿐 아니라 코로나19로 일시적 경영 위기에 처한 지역 소상공인의 생산·판매 물건을 구매해 지원품을 마련하는 등 상생의 의미도 놓치지 않았다. 코로나19 상황에 비대면 전달식 등 기존 명절과는 사뭇 다른 풍경이 연출되었지만, 그 온기만큼은 어느 때보다 훈훈했다.

글강은진 사진박중범, 사랑의열매



지역 소상공인까지 세심하게 도운 경기북부

지난달 24일, 고양시 덕양구에 위치한 덕양행신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사랑의열매 경기북부사업본부에서 진행하는 추석맞이 취약 계층 및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고양시 한가위 온정 나눔 한마당’ 행사가 펼쳐졌다. 이날 행사에는 이재준 고양시장을 비롯해 명절을 위해 기부한 익명의 기업가와 각 사회복지관 관장 등이 참석해 고양시 취약 계층 1,100여 가정에 전달할 나눔 키트를 포장하고 응원 메시지 등을 작성했다. 행사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엄수하며 필수 인원만 참석하고, 나눔 키트를 전달받을 이웃들과는 화상 통화로 명절 인사를 대신했다. 코로나19로 이전과는 사뭇 다른 풍경이다. 하지만 그만큼 세심한 나눔문화도 형성되었다. 나눔 키트에 들어갈 물품을 모두 지역 소상공인에게 구입해 나눔뿐 아니라 상생의 의미도 되살린 것. 사랑의열매 경기북부사업본부의 세심한 배려가 돋보이는 대목이다.



- 1 나눔 키트의 품목은 지역 소상공인의 생선품과 판매품을 구매해 구성했다.
- 2 이웃과 화상 통화로 명절 인사를 대신하는 등 코로나19로 달라진 명절 풍경을 엿볼 수 있었다.
- 3 햇곡식 수확 세리머니 후 기념 촬영 모습



추석 맞아 명절 지원 나선 사랑의열매

사랑의열매는 추석 명절을 맞아 저소득층과 가족 없이 홀로 지내는 이웃이 보다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현금 79억 원, 상품권·쌀·생필품 등 현물 29억 원 등 총 108억여 원을 지원했다. 지원 대상은 전국의 복지 기관 및 자자체를 통해 선정한 1,500여 개 복지시설과 저소득 가정·홀몸 어르신·노숙인·쪽방 거주민 등 17만 9,000여 명이다. 지원은 사랑의열매 중앙회와 전국 17개 시도 지회를 통해 이루어졌다. 이번 추석은 코로나19로 인해 봉사 활동이나 전달식 등 기존의 명절 행사는 축소되거나 진행되지 못했다. 그러나 비대면 전달식과 화상 통화로 명절 인사 나누기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훈훈한 나눔을 이어갔다. 또 명절 연휴 기간 쉽 없이 일하는 의료진 지원을 비롯해 감염병 확산 방지 및 예방을 위한 코로나19 위생 물품이 필수 지원 품목에 포함된 것 등이 코로나19로 달라진 명절 풍경이다.



홀몸 어르신부터 쪽방 거주민, 교육 취약 계층 학생까지

서울 사랑의열매는 다양한 계층의 어려운 이웃을 꼼꼼하게 살폈다. 우선 노숙인과 쪽방 거주민에게 명절 음식 등을 나누며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생필품을 전달하고, 시설에서 생활하는 노숙인에게는 차례상 비용도 지원했다. 6,000여 세대 1억 6,000만 원 상당의 규모다. 또 경제·정신·신체적 이유로 일상생활을 독립적으로 하기 어려운 복지 사각지대 어르신 9,600세대에 2억 4,000만 원 상당의 생필품 키트뿐 아니라, 사회복지사의 어르신 관리 및 안부 서비스까지 병행해 지원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취약 계층 홀몸 어르신들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됐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서울시교육청과 공동 캠페인을 벌여 서울시 관내 교육 취약 계층인 학교 밖 청소년, 탈북 학생 등 총 1,465명에게

계층 학생 농촌사랑상품권 기부



1 매년 생필품으로 구성된 행복꾸러미를 만들어 지원하는 나눔 전문 시민 봉사 조직 '전북사랑의열매나눔봉사단'의 기념 촬영 모습 2 LH세종특별본부는 명절 음식 푸드팩을 제작해 LH임대주택 거주자와 저소득 이웃에게 전달했다. 3 서울시교육청 주최인 교육강(왼쪽)과 서울 사랑의열매 김용희 사무처장이 농촌사랑상품권 전달식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 사랑의열매는 추석을 맞아 도내 소외 계층에 총 6억여 원을 지원한다. 사진은 양평군종합사회복지관에서 명절 행복꾸러미를 포장하는 모습

1인당 20만 원의 농촌사랑상품권을 지원했다. 이번 상품권은 5,000여 명의 학부모가 급식 중단으로 지급받은 식재료 바우처 쿠폰을 다시 기부해 모인 성금 총 2억 9,300만 원으로 조성해 더욱 뜻깊다.

경기, 세종, 전북 등 각지에서 이어진 명절 나눔
 사랑의열매 명절 지원 사업은 전국 각지에서 이어졌다. 경기 사랑의열매는 코로나19 장기화와 연이은 수해 피해로 어려운 상황을 반영해 지난해보다 2억여 원 늘어난 6억 원 규모의 지원을 확정했다. 또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들도 함께 돕기 위해 지역화폐, 온누리상품권, 생필품 세트 등

다양한 방법을 구상 중이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도 명절 음식으로 구성된 '푸드팩'을 제작해 LH임대주택 거주자와 저소득 이웃에게 전하며 지원에 나섰다. 전북 사랑의열매는 생필품으로 구성된 1억 5,000만 원 상당의 '행복꾸러미'와 라면·화장지 각각 6,000세트를 저소득 계층 6,000세대에 전달했다. 무엇보다 지역사회 나눔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시민으로 구성된 봉사단원들이 매년 행복꾸러미를 만들고 전달해 그 의미를 더했다. 이처럼 추석을 맞아 사랑의열매는 많은 이웃이 보다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명절 지원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기부라는 꿈을 이룬 패션 그룹 (주)오아이 스튜디오 정예슬 대표

“제가 겪은 어려움, 다른 친구들은 부디 경험하지 않길 바랐죠”

유년 시절은 늘 어려웠으며, 학창시절 선생님께 차별을 당한 적도 있다.

하지만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버킷 리스트를 하나 더 추가했다.

커서 성공한다면 자신처럼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을 돕겠다고 말이다.

패션 그룹 (주)오아이 스튜디오 정예슬 대표의 이야기다. 글강은진 사진김기남

가입식, 영광스러운 순간

지난달 18일, 패션 그룹 (주)오아이 스튜디오 정예슬 대표를 만난 곳은 성수동에 위치한 회사 집무실이었다. 정 대표는 이제 막 광화문 사랑의열매 본부에서 아너 소사이어티 가입식을 마치고 돌아와 한숨 돌리던 참이었다. 업무와 디자인 작업을 겸하는 정 대표의 집무실은 깔끔하면서도 감각적이었다. 잘나가는 패션 브랜드 대표의 방다웠다고 할까. 군더더기 하나 없이 필요한 것만 최소한으로 갖춘 모습에서 정 대표의 성격을 짐작할 수 있다. 가입식을 마친 소감부터 물었다. “가입을 결정하고 처음 입금할 때 되게 얼떨떨하면서도 무척 뿌듯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가입식에 참석하고 보니 더 보람되더라고요.

아주 영광스러운 자리였습니다.”

정 대표는 사업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른

3년 전부터 국내외 구호단체에 기부하며 나눔을

실행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사랑의열매

아너 소사이어티에 가입하면서 어릴 적 꿈꾸던

하나의 버킷 리스트를 완성했다.

어려움 알기에 꿈꾼 버킷 리스트

정예슬 대표가 2011년 론칭한

‘오아이오아이(O!Oi)’는 독특한 감성과 개성

있는 디자인으로 국내 10대와 20대에게 무척

인기 있는 브랜드다. 이효리, 지드래곤 등 인기

연예인들이 그의 옷을 입어 더욱 유명해졌다.



Dieter P
3
10. Okt. -
Di. bis So. 10-20 Uhr
Less but better

그뿐만 아니라 쇼핑몰 인기에 힘입어 2016년 글로벌 브랜드 탑샵(TopShop) 입점에 성공, 중국·홍콩·일본뿐 아니라 유럽 시장까지 진출하는 쾌거를 이뤘다. 이 밖에도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가 발표한 '2019 아시아의 영향력 있는 30세 이하 리더 30인'에 선정되기도 하는 등 성공을 이룬 대표적 청년 사업가 중 한 명이다. 그러나 정예슬 대표는 기부를 한 후에야 비로소 꿈을 이루었다고 말한다. "저는 굉장히 어려운 형편에서 자랐어요. 당시는 무상 급식이 아닐 때라... 급식비가 밀려 창피를 당해본 적도 있고요. 그때 생각했죠. 커서

성공하면 어려운 친구들이 최소한 내가 경험한 어려움은 겪지 않게 해주고 싶다고요." 이번 기부는 어려웠던 시절 정 대표가 그의 버킷 리스트에 적어놓은 꿈이었다. 꼭 이루고 싶은 꿈 말이다.

미래는 바꿀 수 있으니까

정예슬 대표는 대학에서 산업디자인을 전공했다. 그런데 어떻게 패션 디자이너가 되고, 브랜드까지 론칭하게 되었을까? "제 장점이자 단점인 추진력 강한 성격과 맞물리는 이야기예요. 패션 디자이너가



꿈이었는데, 수능 보고 한 달 만에 자동차와 가구에 꽂혀서 산업디자인으로 진로를 확 틀었어요. 그런데 막상 대학에 가니 판단 미스였다는 걸 깨달았죠.(웃음)”

다시 패션 디자인을 공부하기 위해 진로를 고민하다 휴학 후 영국으로 건너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어학 공부와 일을 병행하며 다양한 디자인 경험을 쌓고 영감을 얻은 후 창업을 했다. 정 대표는 창업 초창기는 사업이라고 부르기 어려운 1인 기업에 지나지 않았다고 웃는다.

“어린 나이에 사업을 하니 상대적으로 아버지뻔 되는 거래처 사장님들을 대하는 일이 가장 힘들었어요. 제 잘못 아닌 일에도 속된 말로 덤터기 쓰는 일도 종종 있었거든요.”

정 대표도 한때는 어려운 형편을 원망하기도 하고, 왜 이렇게 가난할까 의문을 가지기도 했다. 하지만 현재는 바꾸지 못해도 미래는 바꿀 수 있다는 믿음으로 오늘을 만들어냈다.

“ 불우했던 청소년기를 보냈기 때문에 아동과 청소년에 가장 관심이 많아요. 기부를 결정한 것도 저와 같은 힘든 경험을 친구들이 조금이라도 덜 겪었으면 하는 마음에서였어요.”



나눔, 사람이 나누는 최소한의 따뜻함

정예슬 대표는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소설을 가장 좋아한다고 말했다. 어렵고 힘든 순간에는 꼭 이 책을 찾아든다. 나눔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도 정 대표는 이 작품을 예로 들었다.

“나눔은 인간이 서로 나눌 수 있는 최소한의 따뜻함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힘들 때마다 이 책을 읽어요. 책을 읽으면... ‘그래, 사람은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다. 그런 거다’ 하고 마음을 다잡고 다시금 열심히 살아갈 힘을 얻곤 해요.”

정예슬 대표는 앞으로 기부뿐 아니라 직접 봉사 현장에 나갈 계획도 있다. 나눔의 온기 또한 나누고 싶기 때문이다.

“어려운 현실도 언젠가는 경험이 되더라고요. 힘들다고 주저하지 말고 절대 꿈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기부만큼이나 간절한 제 바람이에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에게 정예슬 대표는 따뜻한 응원과 조언도 잊지 않는다. 꿈을 포기하지 않고 이루어낸 사람의 말이어서 그럴까, 울림이 크다. 🍀



교통사고로 잃은 딸 위해 기부한 아버지 조동현 님

“우리 아이가 기뻐할 일이
무엇일까 생각했어요”

아버지의 기억 속에 딸은 언제나 어려운 사람을 도왔다.
길거리의 모금함도 그냥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인정도 많았다. 그런 딸을 위해 아버지는 기부를 했다.
먼저 간 딸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글강은진 사진 사랑의열매

딸을 위한 선물

지난 8월 경기도 시흥의 한 카페에서 아너 소사이어티 가입식이 있었다. 가입식은 고(故) 조은결 씨의 이름으로 진행되었다. 고 조은결 씨는 올해 뜻하지 않은 교통사고로 스물세 살 짧은 생을 마감하고 하늘의 별이 됐다. 아버지 조동현 씨는 딸 이름으로 사랑의열매 아너 소사이어티에 가입하며 딸이 남긴 예금과 보험금 등 1억 원을 기부했다.

“아주 인정이 많은 아이였어요. 갑작스러운 사고로 보상금이나 보험금이 생겼지만... 그 돈을 어디에 쓸 수 있겠어요. 그 어디에도 쓰지 못하겠더군요. 은결이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는 일이 무엇일까 생각하다 아내와 상의해 아이 이름으로 기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생전 딸의 기부 활동, 뒤늦게 알아

고 조은결 씨는 짧은 생이었지만 언제나 남을 돕는 데 적극적이었다. 학창 시절부터 크고 작은 기부에 꼭 동참했고, 이후 국제 구호단체 등에 꾸준히 정기 후원을 해왔다. 그 사실을 아버지 조동현 씨는 딸을 보낸 다음에야 알았다. 이번 아너 소사이어티 기부금에도 고 조은결 씨가 아르바이트 등으로 모은 예금 약 5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

“은결이 친구 어머니가 문자를 보내셨더라고요. 은결이가 구호단체 정기 후원을 하고, 남을 돕는 모습에 감동받아서 자신도 후원에 동참했다고요. 그래서 알았어요. 은결이가 그렇게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관심이 많았다는 것어요.”

조동현 씨도 살아생전 딸이 그랬던 것처럼 형편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기부금을 사용하길 바란다고 했다.

부디 아름답게 기억되길

돌아가신 부모의 이름으로 자녀가 기부한 경우는 많지만, 부모가 숨진 자녀의 이름으로 기부하는 사례는 흔치 않다. 아버지 조동현 씨의 결정이 얼마나 어렵고 아픈 것인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그는 길지 않았던 딸의 삶이 조금은 더 아름답게 기억됐으면 좋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언젠가 나도 기부를 해야겠다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하게 될 줄은 몰랐죠. 인터뷰를 하지만, 사실 부끄럽고 면목이 없습니다. 그저 은결이에게 좋은 선물이 되었기를 바라요.”

아버지의 마음이 부디 고 조은결 씨에게 잘 전달되길 진심으로 바라본다. ❀

주부 9단 노하우와 정리 전문 기술로 '자신만맘'

손길만 스쳐도 신박한 정리 삶도, 공간도 말끔하게 변신



전문 인력으로 거듭난
여성 장애인. 정리 수납
장애인 교육과 수납 코칭
자원봉사를 진행하며
자신의 재능을 다른 곳에
나누기도 한다.

예능 프로그램 <신박한 정리>는 집안을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큰 인기를 모으고 있다. 경북 지역에는 신박한 정리를 뛰어넘는 정리 요정들이 있다. 정리 정돈 '자신만맘' 프로그램을 이수한 여성 장애인들이 그 주인공이다. 주부 9단의 살림 노하우에 전문 정리 기술을 갖춘 자신만맘을 찾는 사람이 점차 늘고 있다.

글 강보라 사진 제공 경상북도여성장애인복지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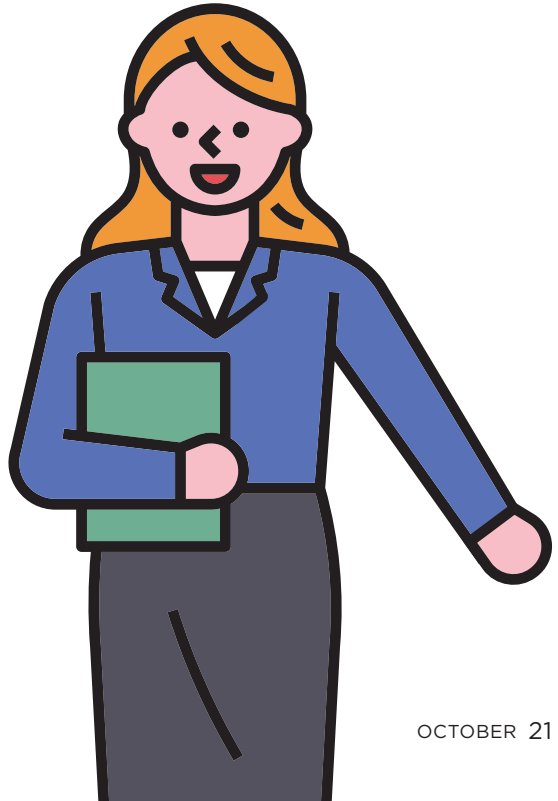


1



2

경단녀(결혼과 육아로 직장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의 취업은 쉽지 않다. 여기에 장애까지 더해진다면? 경력이 단절된 여성 장애인이 현실적으로 취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그런데 경상북도여성장애인복지관에서는 모두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일을 가능한 일로 만들었다. 그것도 자격증까지 갖춘 전문 직업인으로. 경상북도여성장애인복지관은 사랑의열매와 함께 여성 장애인의 활발한 사회 진출을 위해 경북 지역 여성 장애인을 대상으로 정리 전문가를 양성하는 '자신만맘' 사업을 전개했다. 최근에는 '자신만맘' 사업의 성과를 인정받아 2020년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 일자리로 채택했다는 희소식까지 전해졌다. 자칫 지역에 국한돼 소규모 진행으로 그칠 수 있었던 사업이 이처럼 큰 효과를 보게 된 배경에는 사랑의열매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다. 사랑의열매는 사업 초기 2년에 걸쳐 4,000여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정리 정돈 전문가를 매칭해 다른 사업과 차별성을 만들며 발전시켜나가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왔다.



1, 2 정리수납 전문가 자격증을 취득한 여성 장애인들이 일반 가정의 부엌과 옷방에서 분류·정리 작업을 하고 있다.



1



2



3



정리 정돈은 전문가에게 맡겨주세요!

경상북도여성장애인복지관과 사랑의열매가 진행한 ‘자신만맘’ 사업은 90% 이상의 높은 참여율을 보이며 성황리에 시작했다. 비결은 여성 장애인이 잘할 수 있는 분야인 정리를 선정하고 ‘정리 전문가’를 양성한 데 있다. ‘자신만맘’ 사업에 참여해 수납 전문가 2급 자격증을 취득하면 정리 교육 강사로 활동하거나, 일반 가정에 방문해 정리 수납 코칭 일을 할 수 있다. 작업 공간이 일반 가정이라 다른 사무 공간보다 빨리 적응하기 쉽고, 1인 가구와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면서 시장 수요 또한 늘어날 것으로 판단했다. 사업 참여자의 특성과 시장 트렌드의 정확한 분석은 사업 성공의 밑바탕이 되었다.

의사소통 장벽을 뛰어넘은 필답 소통

여성 장애인의 살림 노하우에 전문 정리 기술이 더해지니 1차적으로 자신과 동료의 집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었다. 2차적으로는 경제활동 효과도 있었다. 수납 전문가 2급 자격증을 취득한 전문가로 활동하며 고객의 집을 정리해주고 돈도 벌 수 있었던 것. 마음이 튼튼해지자 가정에서도, 바깥에서도 자신감까지 생겼다. 물론 문제도 있었다. 초기 현장에서 고객과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았던 것. 청각장애인과 지체장애인 참

1 정리의 작업으로 깔끔하게 바뀐 한 가정의 거실 모습
2,3 물건을 용도별로 나눠 분리 수납하면 보기에 깔끔하고, 물건도 쉽게 찾을 수 있어 여러모로 좋다. 동선과 효율을 고려한 전문가의 손길이다.



수납 전문가로 활동하는 여성 장애인 정리 정돈 작업을 통해 성취감을 느끼고, 경제활동으로 자신감도 찾게 된다.

여자로 구성된 자신만맘의 특성 탓에 의사소통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상북도여성장애인복지관은 현장에 나가는 모든 인력에게 수첩을 지급하고, 의사소통 도구로 활용하게 했다. 필담으로 정확한 전달이 이루어지도록 한 것이다. 비장애인 전문가도 수첩을 활용해 장애 여성이 위축되는 일을 미연에 방지했다. 필담 소통은 문제 해결에 유효했고, 수첩은 자신만맘을 상징하는 도구로 떠오르기도 했다.

비장애 전문가보다 꼼꼼한 자신만맘 그녀들

사업 결과는 대만족. 여성 장애인 본인의 만족감이 높은 건 물론, 그 가족들의 만족도도 높았다. 집 안이 깨끗해지고 엄마의 마음이 건강해지는 게 확연히 보였기 때문이다. 한 팀을 이뤄 현장을 정리하는 비장애인 전문가도 “1급 자격증을 취득한 비장애 전문가보다 훨씬 일을 잘한다”고 평가했다. 정리를 의뢰한 가정 역시 달라진 집 안을 살피며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변화된 집을 본 이웃들이 너도나도 “우리 집도 해달라”고 요청할 정도다. 경상북도여성장애인복지관의 ‘자신만맘’ 사업은 2020년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장애인 일자리 사업으로 정식 채택됐다. 앞으로 전국 장애인 관련한 수행 기관에 일자리 매뉴얼 책자도 보급할 예정이다. 경북 지역에서 시작한 사업이 모범 사례로 전국으로 확대된 것이다. 정리 수납 전문가로 사회에 당당히 진출하는 여성 장애인이 앞으로 더 많아지기를 바라본다. ♡



“여성 장애인분들 세상으로 적극 나오세요!”

경상북도여성장애인복지관
공현경 팀장

“많은 여성 장애인이 세상에 적극 나와주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여자니까 안 돼’라고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남성이 못 한 경험을 활용하자’고 생각하길 바라요. 장애가 있더라도 사회에 한 걸음 나와 자립하길 위해 함께 노력하는 거죠. 여성 장애인이 이러한 일을 통해 엄마로서도, 사회인으로서도 자신감을 갖고 당당하게 살아 가면 좋겠어요. 자신만맘이 여러분 곁에서 함께할게요!”

함께할수록 행복해지는 같이의 가치

「'20년 새해다짐 1+1 기부 캠페인」 기부금 전달식 및 「실천 더하기 지역 화훼농가 돕기 릴레이 캠페인」 출발 선언식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은 새해 다짐을 실천하는 1+1 기부 캠페인으로 기부의 일상화를 실천하고 있다.

사회적 책임에 실천을 더하는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은 재해 예방, 업무상 재해 보상, 재해 근로자의 재활,
사회 복귀 등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해 건립한 공공 기관이다.
일하는 삶을 보호하는 본래의 역할뿐 아니라, 대상에 맞춘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으로
지역사회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 글 강보라 사진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은 지속적인 기부 활동을 이어가기 위해 사랑의열매 '나눔리더스클럽(울산 지역 제3호)'에 가입했다. 나눔리더스클럽은 다양한 모임·단체·협회 등의 이름으로 나눔을 실천하며 3년 내 1,000만 원을 기부할 경우 가입이 가능하다. 공단은 울산 혁신 도시 공공기관 최초의 가입으로 남다른 의미를 더했다. 사회 공헌 활동도 모두가 함께 하며 상생할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이처럼 '같이의 가치'를 더하는 활동으로 신뢰받는 공공 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다.

1+1 기부 캠페인으로 모은 나눔의 기적

공단의 대표적 사회 공헌 활동은 새해와 함께 시작하는 '1+1 기부 캠페인'이다. 이 캠페인은 임직원이 개인별 새해 다짐을 공개해 실천 일수에 따라 100원씩 적립하고, 동일한 금액을 사회봉사단 기금으로 추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가령 새해 다짐으로 팔굽혀펴기 1일 100회 하기를 정한 직원이 100일 동안 실천하면 개인 기부금 1만 원(100일×100원)과 사회봉사단 기금 1만 원을 더해 총 2만 원을 기부금으로 적립하는 식이다. 작심삼일로 끝나던 새해 다짐을 기부 활동과 연계해 이웃도 돕고 새해 계획도 장기적으로 이어가는 1석2조 활동에 임직원의 호응이 크다. 1+1 기부 캠페인은 상반기와 하반기 2회에 걸쳐 진행하며 상반기 캠페인 참여 임직원은 금연, 금주, 다이어트 및 운동, 독서 등 개인별 새해 다짐을 내부 온라인 게시판에 공개하고 100일 실천을 완료했다. '매일 계단으로 출근하기'를 실천 과제로 참여한 직원은 "실천을 통해 매일



1 명절마다 어려운 이웃을 살피며 물품 기부 행사를 이어가고 있다.

2 근로복지공단은 지속적인 나눔을 약속하며 나눔리더스클럽에 가입했다.





기부금을 적립하는 방식이라 일회성의 기부와는 다른 느낌이었고, 스스로 건강한 습관을 만들어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이렇게 새해 다짐 실천으로 모은 기부금은 사랑의열매로 전달해 소외된 이웃을 돕는 데 사용한다. 지난해 공단은 새해 다짐 및 환경보호 실천과 연계한 1+1 기부 캠페인으로 총 1,846만 원의 기부금을 사랑의열매에 전달했다.

지역사회를 위한 헌신, 코로나19 위기에서 빛나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 경제가 얼어붙은 상황이다. 공단은 국민과 이러한 고통을 분담하고 극복하기 위해 임직원들이 발 벗고 나섰다. 이사장과 상임이사 등 5명이 오는 4월부터 7월까지 급여를 최대 30% 반납하기로 한 것이다. 이와 별개로 전 직원도 적극 동참해 마련한 성금 1,000만 원을 울산시에 전달했다. 전달한 성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울산 지역의 경제 살리기와 취약 계층 지원을 위해 사용할 예정이다. 여기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제8회 국민권익의 날 기념 부패방지 부문 최고상(국무총리표창)’ 수상으로 받은 포상금 700만 원을 울산 사랑의열매에 전액 기부했다. 이 성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취약 계층을 지원하는 데 사용할 계획이다.

화훼 농가를 돕기 위한 릴레이 캠페인도 실시했다. ‘실천 더하기 지역 화훼 농가 돕기 릴레이 캠페인’으로 확대되었다.

1,2 지역 화훼 농가에서 구입한 꽃과 화분을 근로복지공단 소속 병원에 전달하며 다 함께 상생하는 기부 캠페인을 벌였다.
3 공공 기관장들의 플라워 버킷 챌린지에 공단 김순희 이사장이 참여해 공단 자체 화훼 농가 돕기 캠페인으로 확대되었다.

페인이라는 이름으로 전국에 위치한 근로복지공단 6개 지역본부와 10개 소속 병원에 지역 화훼 농가에서 구입한 꽃과 화분을 전달한 것이다. 싱그러운 꽃과 화분 덕에 병원과 노인요양원의 의료진과 환자들이 모두 즐거워했다는 후문이다. 이처럼 아름다운 윈윈 봉사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솔선수범의 참여로 생명을 구하다

공단의 메디컬 봉사는 지역과 대상을 넓게 아우른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헌혈이다. 공공 기관으로서 헌혈 운동의 사회적 지지 기반 확보와 선진 헌혈 문화 정착을 위해 매년 헌혈 행사를 진행한다. 이 같은 임직원 단체 헌혈로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에 헌혈증 1,004매를 3년 연속 기부하고 있다. 혈액이 부족해지는 동절기에 가장 먼저 달려가는 것도 공단 직원들이다. 헌혈 활동 외에도 지역 홀몸 어르신, 외국인 노동자 등 의료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무료 진료와 산재 상담 등 메디컬 봉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한다. 울산 중구에 있는 장애인복지관, 미혼모의집, 종합사회복지관 등에도 주기적으로 방문해 시설 주변의 화단 정리와 어르신 공원 산책 보조, 말벗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다. 이처럼 참여자와 수혜자 모두 행복해지는 봉사 덕에 오늘도 동참하는 직원이 늘어난다. 근로복지공단의 저력이 단단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



MINI INTERVIEW

“함께 하는 기부 문화를 만들어갑니다”



사회적가치국
김경식국장

1+1 기부 캠페인은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나요? 사회 공헌 활동에 참여하고 싶은 의지가 있지만, 바쁜 업무로 실천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근무 여건에 상관없이 누구나 참여하기 쉬운 기부 모델을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자발적인 참여로 개인의 목표도 실천하면서 취약 계층도 도울 수 있는 1+1 기부 캠페인은 새로운 기부 문화를 만들 것입니다.

매년 다른 미션이 정해지는데, 어떻게 선정하나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100일간 진행하는데, 상반기는 매해 동일하게 새해 다짐 실천으로 정합니다. 하반기는 내부 공모로 이벤트 주제를 선정하고요, 작년의 경우 일상 속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환경보호 다짐으로 진행했고, 올해 하반기는 건강한 조직 문화를 만들기 위한 개인다짐(소리 내어 인사하기, 선후배 및 동료 칭찬하기 등)을 주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이번엔 시즌 4를 맞은 1+1 기부 캠페인에 총 2,136명의 임직원이 참여해주었습니다. 지난 상반기의 참여 인원 674명에 비해 약 4배에 가까운 인원으로, 점점 더 많은 임직원이 기부 캠페인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공단은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 더욱더 노력해나갈 것입니다.

4 근로복지공단은 건강의 지표가 되는 혈압, 당뇨 무료 진료로 지역사회의 건강 지킴이로 나서고 있다.



금융 주치의, 사랑의 금융 119 처방으로 내일을 꿈꾸다

몸이 아프거나 위험에 처했을 때 119를 찾는 것처럼 경제적 위기에도
도움이 필요하다. 이럴 때는 '사랑의 금융 119'를 찾아야 한다.

사랑의 금융 119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구하는
재무 컨설팅으로 서민의 삶에 희망의 날개를 달아준다. 글 강보라 사진 사랑의열매



서민의 삶에 희망의 날개를 달아주는 사랑의 금융 119 자문위원, 금융, 복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들은 현실적 솔루션을 제시한다.



전문가들이
재무 컨설턴트 과정을
이수하며, 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

원스톱으로 가능한 재무 컨설팅과 무이자 대출

살다 보면 실직이나 사고, 질병 등으로 경제적 위기에 빠질 때가 있다. 하지만 사회 취약 계층은 이런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빈곤층으로 전락하기 쉽다. 급한 마음에 고금리 대출에 손대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빚을 감당하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한다.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사랑의 금융 119'가 나섰다. 사랑의 금융 119는 어려운 이웃에게 재무 컨설팅을 지원하며 경제적 자립을 돕는다. 의료, 주거, 생활비 등 최소한의 생계유지가 곤란한 상황에서는 무이자로 1인당 최대 500만 원의 긴급 생계 자금 대출을 지원하기도 한다. 악성 부채로 빚을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에게는 부채 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지속적인 재무 상담과 복지 서비스를 연계한다.

재무 컨설팅과 복지 자원 연계, 대출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며, 금융 취약 계층의 문제에 적극 개입한다.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새로운 삶을 살아갈 원동력을 불어넣는 것이 이 사업의 핵심 목표다.

새로 쓰는 금융 일기로 내일은 맑음

사랑의 금융 119는 일방적인 지식 전달이 아닌,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건강한 재무 자립이 가능해야 근본적으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개인별 과제를 수행하도록 독려하고, 소비 예산 및 목표를 재무 컨설턴트와 함께 설정한다. 참가자 A 씨에게 주어진 과제는 '가계부 쓰기'였다. A 씨는 "40 평생 가계부는 처음 써봤다"고 고백한다. 처음에는 살림의 속살을 들여다보기가 두려워 가계부 쓰기를 외면하기도 했다. 컨설팅을 받으면서 가계부가 가정경제 계획표가 될 수 있다고 인식하면서 달라졌다.

"예산을 수립하고 그 안에서 사용하는 재미가 있어요. 지금 계획대로 3년만 잘 보내면 부채 상황이 끝날 테고, 그다음에는 저축도 가능해 희망이 생겼습니다."

A 씨처럼 현재 상태가 마이너스라도 내일은 플러스가 될 수 있다. 그 생각만으로도 인생이 달라진다. 사랑의 금융 119가 있어 오늘을 살고, 내일을 꿈꿀 수 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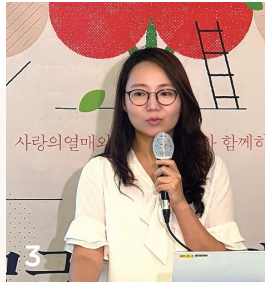
대전 모금아카데미

지역 비영리 기관의 성장을 돕는 새로운 도전

지난 9월 3일 입학식을 시작으로 대전 모금아카데미가 본격적인 일정에 돌입했다.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했지만, 열띤 참여만큼은 오프라인 못지않았다는 후문이다. 이제 막 첫발을 뗀 대전 모금아카데미의 다양한 현장 이야기를 전한다. 글 이선희 사진 사랑의열매

1 온라인으로 진행된 대전 모금아카데미 입학식 2 글로벌 임팩트 트렌드를 강의하는 양후영 유니타이트웨이 월드와이드 아시아 태평양 부대표 3 '사랑의열매 2020 나눔트렌드'를 강의하는 사랑의열매 나눔문화연구소 박미희 책임연구원





사랑의열매와 희망제작소의 야심작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복지 유관 기관, 시민사회단체 등의 활동이 위축되고 모금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기관의 모금 전략을 점검하고, 기관의 기부자가 누구인지, 지역의 자원이 무엇인지를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사랑의열매는 비영리 기관의 자원 개발 역량을 지원하고자 지난 10여 년간 모금가 학교를 운영하며 약 1,000여 명의 모금가를 양성·배출해온 희망제작소와 함께 ‘대전 모금아카데미’를 시작했다. 지역의 나눔 생태계를 활성화하고자 사랑의열매가 최초로 지역에서 진행하는 모금아카데미라 남다른 의미가 있다.

복지 문제를 해결하는 모금가를 꿈꾸며

대전 모금아카데미는 이론·워크숍·자문을 통합한 지역 모금가 양성 프로그램으로, 특히 전문 강사진을 구축해 전임 강사 제도를 통한 일대일 자문을 제공한다. 수료 후에는 모금 실행을 위한 비영리 기관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목표로 한다. 총 7회차 과정이지만 수료하기까지 쉽지 않은 과정을 거쳐야 한다. 종일 진행되는 강의에 참석해야 하며, 그룹 과제를 통해 구체적 모금 실행 계획을 도출해야 하는 등 바쁘게 돌아가는 일정이다. 그럼에도 수강생들은 첫 수업부터 “농촌 지역에 있는 지역 복지 기관의 실무자로, 모금에 대한 아이디어와 기획에 어려움과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복지관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기부를 이끌어낼 수 있는 모금가가 되고 싶습니다” 등 저마다 부푼 기대감을 드러내며 열정적 모습을 보였다. 앞으로 이들이 수료 이후 지역의 복지 문제 해결에 어떤 역할을 할지 벌써부터 기대된다. 🍀

INTERVIEW

희망제작소 이음센터 한상규 센터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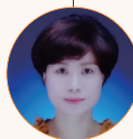
“사랑의열매·대전NGO지원센터와 함께 ‘대전 모금아카데미’를 진행하는 희망제작소 이음센터 한상규 센터장입니다. 이번 교육과정을 통해 모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복지기관과 단체 지속 가능한 성장 및 자립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새로운 시도와 뜻깊은 일을 기획해주신 사랑의열매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앞으로 나눔 생태계의 기반을 만드는 일에 사랑의열매와 더 긴밀히 협력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대전 사랑의열매 박용훈 사무처장



“대전이 지역에서 처음으로 모금아카데미를 열게 되어 깊이 감사드립니다. 사랑의열매의 기본적 역할이 자원을 모으고 나누는 일이라면,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현장과 함께하는 문제 해결 노력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대전 모금아카데미를 통해 각 기관마다 그동안 부족하던 자원 개발 역량도 키우고, 나아가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대전 모금아카데미 교육생



구세군 정다운집 천현옥 사무국장

“대전 지역에서 폭력 피해 여성을 보호하고 자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지만,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이나 2차 피해로 모금 활동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던 중 만난 대전 모금아카데미는 모금이 받는 것보다는 주는 기술이며, 함께하는 동지를 만드는 관계의 기술이라는 것을 일깨워주었습니다.”

24시간이 모자란 상상 이상의 도시 인천

인천을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서쪽에는 푸른 바다와 섬이 어우러진
수려한 자연 풍광이 펼쳐지고, 도심에는 마천루 사이로 화려한 야경을 연출한다.
또 오래된 것과 새로운 것이 조화를 이루며 특유의 낭만을 만들어낸다.
인천에서 지내는 하루가 너무 짧아 자꾸 찾고 싶은 매력적인 도시다.

글 이선희 사진 사랑의열매, 인천관광공사 참고 자료 인천관광공사



송도국제도시 대표 관광명소이자 바닷물로 조성된 최초의 공원인 송도센트럴파크

뷰가 다 했다! 눈이 호강하는 인천의 대표 관광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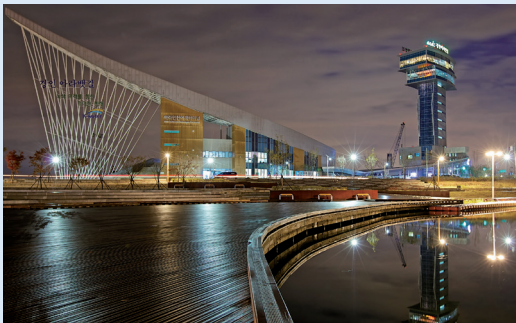
근대로 돌아가는 시간 여행

개항장거리 1883년 제물포항이 개항하면서 중구청 인근의 자유공원으로 오르는 조계지 경계계단부터 신평시장 방향으로 근대개항거리가 조성되었다. 130여 년 전의 무역상, 호텔 등 일본의 독특한 건축양식을 살펴볼 수 있는 건물들이 자리해 역사적으로 가치가 높다. **주소** 인천시 중구 신평로27번길 80(관동1가) **문의** 032-763-3356



도심속 해양습지

소래습지생태공원 1997년까지 천일염을 생산하던 곳이었다. 현재는 염전이 문을 닫으면서 우리나라 해안에 서식하는 수생식물, 염생식물, 습지식물 등을 관찰할 수 있는 야외 학습장으로 탈바꿈했다. 해수족욕탕, 천일염 체험 공간 등 시민의 편안한 휴식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주소** 인천시 남동구 소래로154번길 77 **문의** 032-435-7076



서해와 한강을 잇는 아름다운 길

경인 아라뱃길 한강 하류에서 서해 바다까지 이어진 18km의 물길로, 2012년 개통한 국내 최초의 내륙 운하이다. 아라뱃길 서쪽 끝에 있는 나루터 정서진은 해넘이 명소로 유명하다. 특히 뱃길을 따라 달리는 환상적인 자전거 코스가 라이더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다.

주소 인천시 서구 정서진1로 41 **문의** 1899-3650



1,600년 역사를 자랑

전등사 고려 왕실의 원찰로 진중사로 불렸으나, 충렬왕 때 왕비 정화공주가 옥 등잔을 부처님께 바친 것을 계기로 이름이 전등사로 바뀌었다고 한다. 보물 제178호인 대웅보전의 기둥과 벽면에는 병인양요 때 전투에 임한 장병들이 무운을 빌며 자신의 이름을 써놓은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다. **주소** 인천시 강화군 길상면 전등사로 37-41 **문의** 032-937-0125

'착한시장'의 넉넉한 나눔

인천모래내시장

중소벤처기업부 공모 사업 문화관광형 시장에 무려 세 번이나 선정될 정도로 질 높은 서비스와 다양한 즐길 거리가 있는 전통시장이다. 여기에 '착한시장'까지 더했다.

지난해 10월, 시장 내 가게 33곳이 착한가게에 가입하면서 인천에서 두 번째로 착한시장이 되었다. 모래내시장은 가격·원산지 표시, 안전 관리, 반품·교환, 위생·청결 지키기 등을 실천하며 세대 불문하고 찾는 사람이 많은 인천 남동구를 대표하는 전통시장으로 자리 잡았다. 받은 사랑을 지역사회에 돌려주고 싶다는 마음으로 경제 불황 속에서도 나눔의 뜻을 모았다. 앞으로 모래내시장에 나눔이 활발히 전파되어 '나눔 대표 시장'으로 거듭나길 바라본다. ❀

MINI INTERVIEW



인천모래내시장 서장열 상인회장(골든벨리 대표)

"우연한 기회에 착한가게를 알게 되어 우리도 가입해야겠다고 뜻을 모았습니다. 처음엔 10곳 정도만 가입 의사를 밝혔지만 점점 늘어나 33곳이 동참했습니다. 상인 대부분 남을 돕는다는 게 뿌듯하고 기쁘다는 반응입니다. 저희 시장에 처음 오신 분들은 깜짝 놀랍니다. 다른 시장에 비해 중앙 진·출입로가 넓고 쾌적하며, 보는 재미까지 있기 때문이죠. 암행어사 고객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정도로 늘 친절한 인천모래내시장을 많이 방문해주세요."





| 식품 | |
|-----------|--------|
| 김치전문점 | 김희숙 대표 |
| 대명상사 | 신민호 대표 |
| 미래반찬 | 정종관 대표 |
| 진로반찬 | 황윤식 대표 |
| 착한탕국 | 조상덕 대표 |
| 춘양이와 이도령 | 허윤숙 대표 |
| 케익하우스 델리 | 박상덕 대표 |
| 식당 | |
| 명태어장 | 배용환 대표 |
| 모래내한식뷔페 | 이유리 대표 |
| 해구신 | 최향숙 대표 |
| 황금명태 | 김민기 대표 |
| 농축수산 | |
| 천재축산유통 | 문천재 대표 |
| 하나축산 | 강현구 대표 |
| 황금과일 | 우명희 대표 |
| 의류 집화 | |
| 골든벨리 | 서장열 대표 |
| 구월동송틀이불집 | 소공자 대표 |
| 남성크로커다일 | 변태식 대표 |
| 레드롤리팝 | 한복숙 대표 |
| 명동의류세일타운 | 선지영 대표 |
| 모델아이 | 노점수 대표 |
| 모래내종합주방그릇 | 이상원 대표 |
| 봉지나인 | 김영숙 대표 |
| 소금창고 | 운영해 대표 |
| 순이의신발장 | 이동환 대표 |
| 월드식자재마트 | 김필영 대표 |
| 이브자리 | 서장근 대표 |
| 크로커다일레이디 | 김외숙 대표 |
| 트라이 아름유통 | 강정희 대표 |
| 기타 | |
| 구월남촌새마을금고 | 공병욱 대표 |
| 단비어린이집 | 조경희 대표 |
| 씨앤연구월점 | 신인철 대표 |
| 중앙부동산 | 김양미 대표 |
| 행복드림의원 | 윤정열 대표 |

코로나바이러스도 막지 못하는 즐거움

집에서 즐기는 온라인 지역 축제

시흥갯골축제

지난 9월 16일에 축제의 막이 올라 45일간 긴 여정이 시작됐다. '일상으로 찾아온 생태 예술 놀이터'라는 주제에 맞게 갯골랜선놀이터 프로그램은 자연 소재를 활용해 집에서 작품을 만들어보는 '우리 집 생태공작소', 우리 집에 있는 물건으로 작품을 만들어보는 '지구를 지키는 워크숍' 등 집콕 중인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생태 체험 놀이가 준비되어 있다. 이 밖에 갯골랜선패밀리런, 갯골퍼레이드, 동물변신 드레스룸 등 기존 현장에서 진행하던 프로그램을 비대면 버전으로 전환한 프로그램과 갯골랜선예술제 등을 만나볼 수 있다.

● 축제 기간 9월 16일~10월 30일 ● 홈페이지 sgfestival.com



김제지평선축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5대 명예 대표 문화 관광 축제 중 유일한 전통 농경문화 축제다. 명성답게 온라인 축제에서도 전통 농경문화와 고유한 지역 문화를 살린 콘텐츠가 눈에 띈다. '우리 가족 초가집 만들기', '지평선 라이스 집콕' 등 집에서 체험할 수 있는 집콕 키트를 통해 놀 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한다. '지평선 경매', '지평선 라이브커머스' 등을 통해 김제 무형문화재 명장의 공예품과 농특산물을 판매하고, 인플루언서 유튜버를 섭외해 김제 투어·먹방 등으로 김제 관광지와 맛집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 축제 기간 10월 7~11일

● 홈페이지 www.gimje.go.kr/festival

예년 같았으면 벌써 전국은 축제 열기로 들썩였겠지만,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오프라인 행사는 거의 하지 않는다. 대신 온라인 축제 개최를 준비하고 있는 곳이 많다. 각 지역의 특산물을 주제로 알찬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온라인 축제를 소개한다. 글 이선희 사진 각 축제준비위원회

횡성한우축제

기존 오프라인 축제의 틀에서 벗어나 온라인 축제에 맞는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이벤트를 준비 중이다. 유명 셰프 및 셀럽을 초청해 진행하는 오픈 키친과 먹방을 통해 횡성한우를 맛있게 먹는 방법을 소개하는 등 횡성한우 소비 촉진에 기여할 계획이다. 또한 횡성한우체험관, 루지 체험장, 횡성호숫길 등 주요 관광지와 체험 시설 소개, 캠핑을 연계한 '캠핑하누'를 추진한다. 이 밖에도 '라이브커머스', '한우송 챌린지', '랜선 콘서트', '4인4색 하누일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이벤트를 진행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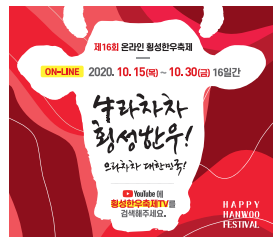
- 축제 기간 10월 15~30일
- 홈페이지 www.온라인횡성한우축제.com



금산인삼축제

39년 전통과 역사의 명맥을 잇기 위해 신체 접촉이 없는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변경해 추진한다. 이번 온라인 축제에선 '방구석, 꿀잼 체험' 코너를 통해 인삼주 만들기, 향첩 만들기, 예코백 만들기 등 온택트 인삼·약초 체험 키트를 신청할 수 있다. '집콕 아누나 도전' 코너에서는 '삼(蔘)시세끼, 인삼푸드 경연', '금산, 건강댄스 챌린지', '우리 아기 심쿵 콘테스트' 등 전국 공모 이벤트를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다. 금산 주민과 청소년들이 직접 금산을 홍보하는 '금산, 동네 한바퀴' 등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일 예정이다. 🍀

- 축제 기간 10월 9~18일
- 홈페이지 www.gsfestival.co.kr



세상을 바꾸는 모두의 펀딩

사랑의열매 클라우드펀딩

사랑의열매가 새로운 사회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긍정적 변화를 만들어가고자 사랑의열매 홈페이지를 통해 클라우드펀딩을 진행 중이다. 이번 달에는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을 돕기 위해 제작한 투명마스크 지원을 위한 펀딩을 시작했다. 글 이선희 자료 사랑의열매



믿고 보는 펀딩 후기

“덕분에 올 여름 폭염 걱정을 덜었습니다”

노숙인 폭염 응급 키트 지원 지난 7월 길에서 생활하는 이웃에게 폭염 응급 키트를 선물하기 위해 클라우드펀딩을 진행했다. 올해는 노숙인이 잠시 더위를 피할 곳도 마땅치 않았다. 무더위 쉼터는 문을 닫았고, 은행이나 상점 등에는 마스크 없이 출입할 수 없었다. 뜨겁게 달궈진 길거리에서 폭염을 오롯이 견디는 일 외에 별다른 방법이 없었다. 이에 사랑의열매, 서울에너지복지시민기금, 서울노숙인시설협회가 힘을 모아 펀딩을 진행하게 되었다.

시설에 배치, 위급 상황 신속 대처 가능 이번 펀딩 모금을 통해 5개 노숙인 시설(디딤센터, 만나샘, 웅달샘, 햇살보금자리, 양평쉼터)에 폭염 응급 키트를 각각 1개씩 지원할 수 있었다. 덕분에 심각한 온열 질환을 예방했으며, 긴급한 상황에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었다.



디딤센터



만나샘



웅달샘



햇살보금자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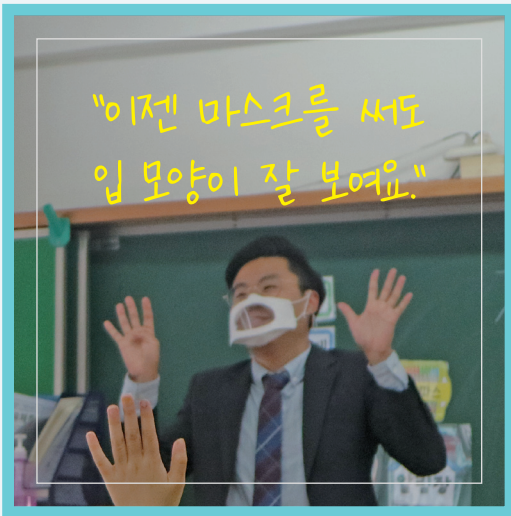
양평쉼터

“응급 상황에 대비해 꼭 필요했는데, 후원자분들 덕분에 전달받게 되어 정말 감사합니다.” - 디딤센터

“코로나19 등 큰 이슈로 이웃에 대한 관심이 줄었다고 생각했는데, 변함없이 나눠주시는 관심과 나눔에 감사드립니다.” - 만나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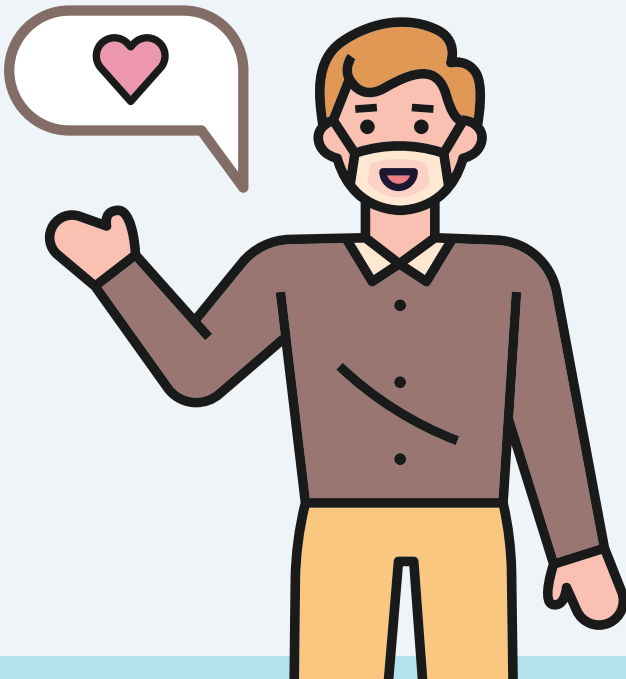
10월의 펀딩 스토리

청각장애인의 소통을 위한 투명마스크 지원



마스크 착용이 일상화된 지금 대화에 어려움을 겪는 청각장애인

우리나라 청각장애인의 90% 이상이 음성언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인공 달팽이관 수술이나 보청기 같은 청각 보조 기기를 통해 소리를 들을 수 있지요. 다양한 소리가 함께 어우러지는 환경에서는 상대방의 목소리와 더불어 입 모양을 보며 대화 내용을 파악합니다. 그래서 입이 보이는 투명마스크가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코로나19 예방과 소통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투명마스크 지원에 동참해주세요.



'안 보여'서 소외당하는 청각장애인이 없도록 함께해주세요

모금 기간 2020년 11월 30일까지

목표 금액 300만 원

모금 사용 예정 청각장애인의 소통을 위한 보이는
투명마스크 지원

모금 참여 사랑의열매

홈페이지(www.chest.or.kr) ->

캠페인 -> 크라우드펀딩



OR코드를 찍으면 사랑의열매
(크라우드펀딩) 홈페이지에 바로 접속

중앙회



미니골드, 최초 브랜드 콜라보레이션 협약 및 나눔명문기업 가입

사랑의열매가 패션 주얼리 브랜드 미니골드(miniGOLD)의 (주)HON(대표 노희옥)과 콜라보레이션 업무협약을 맺고 나눔명문기업에 가입했다. 지난 9월 23일 서울 중구 사랑의열매회관에서 (주)HON 노희옥 대표이사, 노민정 상무, 이광국 총괄본부장과 사랑의열매 김연순 사무총장, 김누리 마케팅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 협약식을 진행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미니골드는 11월 중 로고를 활용한 사랑의열매 에디션 '러브체리쉬 컬렉션' 주얼리 두 가지 세트와 브로치, 남성 시계, 여성 시계 각각 1종을 출시할 예정이며, 11월 3일부터 12월 31일까지 '러브체리쉬 캠페인'을 진행한다.

이번 콜라보레이션은 사랑의열매에서 최초로 진행하는 타 브랜드와의 협업으로, 미니골드 주요 소비자인 20~30대 MZ(밀레니얼·Z) 세대에 사랑의열매가 친근하게 다가가고자 기획하게 됐다.

또한, 미니골드는 나눔명문기업 가입을 통해 1억 기부를 약속했고 이를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게 되었다. (주)HON 노희옥 대표이사는 "사랑의열

매와 미니골드가 만나 젊은 세대에 나눔의 의미를 알리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함을 나눌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미니골드의 기부금은 희귀난치성 질환을 가진 아동들을 지원하는데 쓰일 예정이다.



사랑의열매 김연순 사무총장과 (주)HON 노희옥 대표이사

중앙회



위니아에이드, 착한소비로 모은 7700만 원 전달

위니아에이드(대표 백성식)가 전자 제품 판매로 모은 적립금 약 7,700만 원을 사랑의열매에 기탁했다. 지난 6월에 맺은 판매 수익금 일부를 기부하는 착한소비 업무 협약에 따라 위니아담채 전문점에서 6~7월에 판매한 전자 제품 1대당 3,000원씩 적립해 기부금을 모았다. 이번 기부를 통해 위니아에이드는 '힘내라! 대한민국 나눔캠페인'에 동참했으며, 전달한 기부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재난 취약 계층과 소상공인 등을 돕기 위해 사용한다.



102억 원규모 호우 피해 특별 지원

사랑의열매는 지난 8월 호우 피해 지역과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 모금을 실시했다. 많은 기업인과 유명인이 참여하는 등 특별 모금 기간 동안 102억 1,884만 원이 모였다. 모금한 기부금은 수해를 입은 주택 및 시설 복구, 이재민들의 생필품 등 구호 키트를 지원하는 데 사용한다. 또 사랑의열매는 특별 지원 외에도 긴급 지원을 통해 피해가 심각한 11개 시도 지역에 13억 3,100만 원을 지원해 수해 복구와 피해 저소득층 생계비 등으로 사용했다.

서울



SBI저축은행, 성금 3억 3,000만 원 기부

SBI저축은행(대표이사 정진문)이 서울 사랑의열매에 아동 사회 공헌 사업을 위한 성금 3억 3,000만 원을 전달했다. 성금은 학대 피해 아동 지원에 1억 2,000만 원, 파산 가정 아동 지원에 1억 5,000만 원, 아동복지시설 맞춤형 지원 사업에 6,000만 원을 사용한다. 정진문 대표이사는 "일시적 지원이 아닌 근본 문제 해결과 자립 환경을 조성하는 등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주)엑스오비스 김용민 대표, 아너 소사이어티 가입

(주)엑스오비스 김용민 대표가 서울 사랑의열매 아너 소사이어티 295호 회원으로 가입했다. 평소 기부에 관심이 많던 김 대표는 항상 나눔을 실천해온 아버지의 권유에 따라 고액의 기부를 결심했다. 또 아너 소사이어티 가입액인 1억 원 외에 두 자녀가 추후 기부를 이어 갔으면 하는 마음을 담아 200만 원을 추가 기부했다. 김 대표는 "현재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은데 다른 분들도 기부에 함께 참여해 많은 힘이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부산



BNK금융, 장학금 2억 6,500만 원 전달

지난 8월 31일 BNK금융(회장 김지완)이 부산 사랑의열매에 장학금 2억 6,500만 원을 전달했다. BNK금융은 2007년부터 공익 재단인 'BNK희망나눔재단'을 통해 매년 지역의 모범 학생과 성적이 우수한 인재를 선정해 지금까지 총 7,300여 명에게 69억여 원의 장학금을 지원했다. 올해는 부산·김해·양산 소재 25개 대학교와 부산 시교육청·지역아동센터·아동복지협회로부터 추천받은 모범 학생 등 총 185명에게 1인당 최대 2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부산소방본부, 저소득 이웃 위해 성금 기탁

부산광역시소방본부(본부장 변수남, 이하 부산소방본부)가 지난 9월 9일 부산 사랑의열매에 1,670만 원을 기탁했다. 이번 성금은 올 여름 폭우와 연이은 태풍 피해로 도움이 손길이 필요한 이웃들을 위해 부산소방본부와 부산소방대원 3,000여 명이 따뜻한 마음을 모아 마련한 것이다. 변수남 본부장은 "앞으로도 부산소방본부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부산 시민들과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대구



노원동주민자치위원회, 착한단체 가입

대구시 북구 노원동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차점용)가 대구 사랑의열매 착한단체에 가입했다. 회원들은 한마음으로 나눔 실천을 약속하며, 대구의 나눔 열기를 이어갔다. 가입식에는 차점용 노원동 주민자치위원장, 이동인 노원동장 및 주민자치위원들과 협의체 위원들이 참석해서 자리를 빛냈다. 차점용 위원장은 "회원들과 함께 나눔에 동참하게 돼 기쁘다"며 "다양한 방법으로 이웃을 돕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달서구가정어린이집연합회, 성금 273만 원 기탁

대구시 달서구가정어린이집연합회(회장 고정경)가 호우 피해 극복을 위한 성금 273만 원을 대구 사랑의열매에 전달했다. 성금은 집중 호우 피해 지역의 긴급 이재민 구호, 재해 구호 물품 및 수해 지역 복구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 고정경 회장은 "이번 폭우로 피해가 많은 전라도를 비롯한 타 지역의 수재민을 돕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해 가정어린이집연합회 회장님들과 보육 교사들이 십시일반 성금을 모금했다"고 밝혔다.

인천



인천 아너 소사이어티 클럽, 어르신 삼계탕 지원

지난 8월 20일 인천 아너 소사이어티 클럽(회장 장진호) 회원들과 인천 사랑의열매가 연수구노인복지관을 방문해 저소득 어르신들을 위한 삼계탕 300인분을 전달했다. 행사는 폭염으로 힘들어하는 어르신들의 원기 회복을 위해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자 기획했다. 장진호 회장은 “앞으로도 인천 아너 소사이어티 클럽은 다양한 활동으로 이웃들을 위한 나눔을 실천하겠다”고 전했다.

광주



노블레스 아카데미 5기 원우회, 식료품 지원

노블레스 아카데미 5기 원우회(회장 차경봉)가 수해 이재민을 위해 1,000만 원 상당의 식료품을 광주 사랑의열매에 전달했다. 식료품은 수해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주 지역 취약 계층에 지원했다. 차경봉 회장은 “회원 모두가 경비를 절약해 마련한 모금액으로 식료품을 전달하게 됐다”며 “수해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재민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신중년 일자리 창출 사업 후원금 전달식**

2020. 9. 17(목) | 인천국제공항공사 | 인천사랑의열매



인천국제공항공사, 신중년 일자리 창출 사업 후원금 전달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구본환, 이하 공항공사)가 지난 9월 10일 인천 사랑의열매에 신중년 일자리 창출 사업 후원금 8억 원을 전달했다. 이번 사업은 50세 전후 직장에서 퇴직한 신중년 세대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작했다. 지역 커뮤니티센터 조성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세대 간 교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지역 커뮤니티센터의 명칭은 'Round.G(라운드지)'로, 향후 전국 17개 시도에 순차적으로 확대 조성할 계획이다.



광주 시내버스 10개 회사, 성금 1억 원 기부

광주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임동춘) 소속 광주 시내버스 10개 회사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주 지역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한 성금 1억 원을 광주 사랑의열매에 기부했다. 임동춘 이사장은 “코로나19로 고통을 겪고 있는 광주 지역에 온정을 전할 수 있어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광주버스운송사업조합은 광주 지역에서 개최한 국제 행사와 지역 문화 행사 등을 지원하고, 복지시설 지원 및 봉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오고 있다.

대전



어린이집 39개소, 단체 가입으로 착한가게 1,000호 달성

지난 9월 15일 대전시어린이집연합회(회장 이애란) 소속 어린이집 39개소가 대전 사랑의열매 착한가게에 단체 가입했다. 이번 가입으로 대전 사랑의열매는 착한가게 1,000호를 달성했다. 이애란 회장은 “착한가게 1,000호라는 의미 있는 숫자에 대전 지역 어린이집들이 함께하게 돼 매우 기쁘다”며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집 휴원을 거치며 여러모로 어려운 상황에서 기꺼이 나눔에 동참해 주신 어린이집 원장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추석 명절맞이 지원금 1억 원 지원

대전 사랑의열매는 지난 9월 21일 대전시청에서 2020년 추석 명절을 맞아 취약 계층 지원을 위한 배분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총 1억 원의 배분금 중 8,500만 원은 대전 관내 저소득 가정, 소년소녀 가장, 장애인 및 독거노인 등 취약 계층 2,312세대에 지원했으며, 1,500만 원은 관내 사회복지시설·기관 이용자를 위한 추석 명절 사업비로 지원했다. 대전 사랑의열매 정태희 회장은 “주변의 모든 이웃이 따뜻한 추석 명절을 보내길 바란다”고 전했다.

울산



애플헬스케어, 취약 계층 초등생에 마스크 전달

울산의 마스크 제조 기업 애플헬스케어(대표이사 윤성운)가 지역 취약 계층 초등학생 1,800명에게 1년 동안 1인당 매달 10장씩 마스크를 기부하기로 약속했다. 기부할 마스크는 총 21만 6,000장으로 8,640만 원 상당이다. 그뿐만 아니라 울산재가노인복지협회에 어르신들을 위한 성인용 마스크 1만 장(660만원 상당)을 추가로 기부할 예정이다. 윤성운 대표이사는 “취약 계층 초등학생과 어르신들이 보다 안전하게 생활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경남은행사랑나눔재단, 추석맞이 온누리상품권 기부

지난 9월 21일 경남은행사랑나눔재단(이사장 황윤철)이 추석을 맞아 온누리상품권 7,000만 원을 울산 사랑의열매에 기탁했다. 상품권은 구청·군청의 추천을 받아 생활이 어려운 1,400세대에 전달할 예정이다. 경남은행사랑나눔재단은 매년 어려운 계층의 풍성한 명절과 지역 시장 활성화를 위해 상품권을 기부하고 있다. 또 평소 김장 김치 나눔, 폭염기 냉방용품 지원, 동절기 난방용품 지원 등 꾸준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

경기



영보자애원 생활인, 이웃사랑 성금 기탁

용인시 여성 노숙인 요양 시설인 영보자애원이 지난 9월 11일 경기 사랑의열매에 성금 219만 1,000원을 기탁했다. 성금은 영보자애원에서 생활하는 생활인 300여 명과 임직원이 십시일반 모아 마련했다. 영보자애원 생활인들은 최근 언론 보도에서 코로나19와 수해 피해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어려운 계층에 대한 소식을 접하고 기부를 결심했다. 모두가 힘든 때 자신보다 더 어려운 이웃에게 나눔을 실천해 모두의 마음을 훈훈하게 물들였다.



기아자동차(주)화성공장, 범죄 피해자 지원 성금 전달

지난 9월 16일 기아자동차(주)화성공장이 화성 지역 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성금 1,000만 원을 기탁했다. 성금은 범죄 피해와 생활고로 어려움을 겪는 화성시 서부 지역 이웃에게 지원했다. 화성서부경찰서의 내부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추천받았으며, 경기 사랑의열매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전달했다. 기아자동차(주)화성공장의 범죄 피해자 지원 사업은 2016년에 시작했으며, 현재까지 누적 지원 성금은 4,000만 원에 이른다.

경기북부



인천지방세무사회, 저소득층 위한 기부금 전달

지난 9월 8일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이금주)가 경기북부 사랑의열매에 성금 200만 원을 전달했다. 성금은 인천지방세무사회 소속 회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마련했으며, 경기북부 지역 저소득층 주민을 위해 사용할 예정이다. 이금주 회장은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인천지방세무사회는 인천시와 경기북부 지역에 개업한 1,363명의 세무사로 이뤄진 조세 전문단체다.



보훈공단 남양주보훈요양원, 착한ilter 가입

보훈공단 남양주보훈요양원(원장 조성제)이 경기북부 사랑의열매 착한ilter에 가입했다. 이번 가입으로 남양주 관내 최초의 요양원 착한ilter가 탄생했으며, 임직원은 매월 급여의 일부를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하게 된다. 조성제 원장은 "임직원 모두가 어려운 상황일수록 나눔을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착한ilter에 가입했다"며 "이번 가입을 시작으로 나눔 실천이 더 많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원



한국OGK, 자외선 차단 선글라스 전달

지난 9월 16일 한국OGK(대표 박수안)가 2억 7,500만 원 상당의 자외선 차단 선글라스 2,520개를 강원 사랑의열매에 기부했다. 선글라스는 강원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19개소를 통해 다문화가정에 전달했다. 박수안 대표는 “어려운 이웃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기업이 되겠다”고 말했다. 한국OGK는 1979년에 설립한 세계적 광학 기업으로, 스포츠 아이웨어와 프로텍터 등을 생산한다.



재경흥천군민회, 이웃 돕기 성금 1,000만 원 기부

재경흥천군민회(회장 문원국)가 지난 9월 17일 취약 계층 주민 돕기 성금 1,000만 원을 강원 사랑의열매에 기탁했다. 재경흥천군민회는 2018년 나눔리더스클럽 회원으로 가입했으며, 고향사랑 성금을 기탁하는 등 꾸준히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해왔다. 문원국 회장은 “코로나19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성금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성금은 흥천군 저소득층 주민을 대상으로 지원했다.

충북



충북공무원노동조합, 수해 의연금 3,400만 원 기탁

지난 8월 12일 충북공무원노동조합은 충북도지사 집무실에서 수해 의연금 기탁식을 가졌다. 충북공무원노동조합은 3,400만 원의 의연금을 기탁했으며, 충북공무원노동조합 이병민 위원장은 “수해 피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이웃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모금한 의연금은 수해 피해 지역의 빠른 복구와 이재민을 지원하는 데 사용할 예정이다.



허선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장, 성금 300만 원 기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충북 지역 저소득층 학생을 위해 허선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장이 지난 9월 10일 성금 300만 원을 충북 사랑의열매에 전달했다. 허선 원장은 “코로나19 감염증의 장기화로 지역 주민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이번 기부를 통해 위기 극복에 힘이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기부금은 지역 내 저소득층 학생의 학업과 생계 지원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

충남



복지사각지대 영세상인 대상 긴급 생계비 배분

충남 사랑의열매가 지난 9월 17일 충남 지역 내 전통시장 영세 상인을 위한 긴급 생계비 4억여 원을 전달했다. 전달한 배분금은 지난 2월 말 '코로나19 특별 모금' 기간 중 충남도청 공직자와 도 산하 기관, 시군 지자체장 급여 기부를 통해 모금한 것이다. 이번 긴급 생계비는 제도권 사각지대에 있는 영세 상인을 대상으로 충남도청과 충남 15개 시군 관련 주무 부서 및 시장 상인회에서 신청을 받아 배분분과실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했다.



한국서부발전(주), 지역사회 소원 이룰 지원금 전달

지난 9월 2일 한국서부발전(사장 김병숙)이 '위피에게 소원을 말해봐!' 사업에 5,000만 원을 기탁했다. 사업은 한국서부발전이 지역사회의 요구를 파악해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상생 프로그램이다. 지난 7월 15일부터 한 달간 충남 지역 중위 소득 80% 이내의 개인과 사회복지 기관·단체에서 소원을 신청받았고, 심사를 거쳐 최종 12건을 선정했다. 누리마을(장애인 생활 시설)에서 대표로 사업비 2,471만 원을 전달받아 소원을 이루는 데 사용할 예정이다.

전북



이심 서울·한양CC 이사장, 이웃사랑 기금 전달

지난 9월 4일 이심 서울·한양 컨트리클럽(이하 서울·한양CC) 이사장이 전라북도 이웃사랑 성금 3,500만 원을 전달했다. 서울·한양CC는 오랜 역사를 지닌 골프장으로, 이심 이사장은 전라북도 명예도민이기도 하다. 이심 이사장은 "코로나19와 집중호우로 시름에 잠긴 전북도민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서울·한양CC의 회원들이 성금을 모았다"고 전했다. 기부금은 대한노인회 전라북도연합회를 통해 도내 저소득 노인 세대에 지원할 예정이다.



대한불교 조계종, 성금 2,000만 원 기탁

대한불교 조계종이 지난 7월 30일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와 대응을 위한 성금 2,000만 원을 전북 사랑의열매에 전달했다. (재)아름다운동행 상임이사 일화 스님은 "코로나19의 지역 확산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방역 당국의 노고에 위로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바이러스가 종식될 때까지 모두가 마음을 모아 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탁금은 전라북도 자원봉사센터에 지원해 도내 방역 사업에 사용했다.

전남



서원컴프레사(주) 박종욱 대표, 아버지 이름으로 아너 가입

서원컴프레사(주) 박종욱 대표의 아버지인 故 박영재 아너가 1억 원을 기탁했다. 박종욱 대표는 경기 아너 부대표이자 경기 가족 2호 아너로, 생전 고인의 뜻을 존중해 고향인 전남 무안 지역 어르신 복지를 위해 기부를 약속했다. 이로써 故 박영재 회원은 무안군 최초이자 전남 100번째 아너가 됐다. 박 대표는 “유년 시절 기억 속 아버지는 이웃들과 나누며 사는 분이셨다”며 “아버지를 본받아 꾸준한 나눔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주)리더스유니온, 1억 원 상당 보호복 기부

(주)리더스유니온(회장 김창환)이 지난 9월 8일 코로나19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보호복 7,000벌을 도내 사회복지시설에 지원했다. (주)리더스유니온은 아파트 시행사로, 순천시 서면에 있는 아파트 전 세대가 분양돼 순천 시민과 전라남도에 보답하고자 물품을 기탁했다. 김창환 회장은 “코로나19로 위기를 겪는 도민의 안전을 위해 보호복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기탁받은 보호복은 사회복지시설 내 코로나19 의심 환자 발생 시 신속한 대응에 사용할 예정이다.

경북



경상북도개발공사, 경북 1호 나눔명문기업 가입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중록)가 지난 9월 8일 5억 원 기부를 약정해 경북 첫 나눔명문기업이자 가장 높은 등급인 골드 정화원이 됐다. 경상북도개발공사는 지방 공기업으로 사회 가치 실현과 나눔문화 확산을 선도하기 위해 매년 다양한 사회 공헌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안중록 사장은 “우리 공사가 경북 지역 첫 번째 나눔명문기업이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위해 앞장서서 지속적으로 힘을 보태겠다”고 전했다.



DGB금융그룹, 성금 5,000만 원 전달

지난 9월 14일 DGB금융그룹(회장 김태오)이 지역 사회복지시설을 위한 성금 5,000만 원을 경북 사랑의열매에 기탁했다. 이번 성금은 DGB금융지주 창립 기념 사회 공헌 행사인 ‘행복 Dream Day’의 일환으로 진행해 임직원의 급여 1%와 계열사 기부금으로 조성했다. 김태오 회장은 “임직원들의 마음이 모인 기부금이 지역민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부금은 50여 개소 사회복지시설에서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 비용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경남



한국남동발전, 추석맞이 진주 농산물 기탁

지난 9월 14일 한국남동발전이 지역 내 도움이 필요한 200가구에 농산물을 전달해 추석 명절 차례상 준비 부담을 덜어주었다. 한국남동발전은 매년 설과 추석에 진주 관내에서 생산하는 신선한 농산물을 어려운 계층에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진주원에농협에서 1,000만 원 상당의 농산물을 구매해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지역 농업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



지엠한마음재단코리아, 창원시 취약 계층 지원

지엠한마음재단코리아(이하 한마음재단)는 지난 9월 9일 창원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취약 계층 지원을 위해 700만 원 상당의 전통시장 상품권을 경남 사랑의열매에 전달했다. 상품권은 창원시 사회적 지과에서 선정한 140세대에 지원했다. 이번 지원은 전통시장의 수요를 높여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격상으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제주



제주양돈농가, 릴레이 기부 캠페인 전개

지난 8월 20일 제주양돈농가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230일의 행복(福)나눔 릴레이 캠페인' 출범식을 가졌다. 이번 캠페인은 양돈 농가에서 전 도민에게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나아가 코로나19를 함께 극복하자는 의미에서 시작했으며, 내년 4월 6일까지 자발적인 참여로 전개해나간다. 제주양돈농협 고권진 조합장과 (사)대한한돈협회 제주특별자치도협회 김재우 회장이 릴레이 기부의 첫 주자로 캠페인의 시작을 알렸다.



제주시농협, 추석맞이 공익기금 2,000만 원 전달

추석 명절을 맞아 제주시농협(조합장 고봉주)이 지난 9월 9일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 공익기금 2,000만 원을 제주 사랑의열매에 기탁했다. 제주시농협은 지역사회와 상생하고, 농협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2011년부터 매년 공익기금을 지역사회에 환원해 오고 있다. 이번 공익기금은 하나로마트 수익금 중 일부로 마련했다. 고봉주 조합장은 "추석을 앞둔 시기에 이웃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세종



내세종특별본부, 이웃사랑 성금 기탁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세종특별본부(본부장 임동희)가 지난 9월 9일 추석 명절을 맞아 이웃사랑 성금 3,000만 원을 세종 사랑의열매에 기부했다. 기부금은 명절 음식으로 구성된 12만 원 상당의 푸드팩 제작에 사용했으며, 내세종특별본부 직원들이 직접 관내 어려운 계층 250여 가구에 전달했다. 임동희 본부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나눔문화 실천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한우협회 세종시지부, 곰탕으로 이웃사랑 실천

지난 9월 9일 전국한우협회 세종시지부(지부장 윤석명)가 도담동·종촌동·고운동·보람동·장군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360만 원 상당의 한우곰탕 360kg을 전달했다. 전국한우협회 세종시지부는 지난 2014년부터 매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 소외된 이웃에 한우를 전달해왔으며, 올해 기부한 한우곰탕은 어려운 계층 120가구에 전달했다. 윤석명 지부장은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힘든 이웃을 위해 한우 농가와 협회가 나눔 행사를 갖게 됐다”고 밝혔다.

사랑의열매 다양한 기부 방법

문자 기부
#9004
한 통에 2,000원

ARS 기부
060-700-1212
한 통에 3,000원

온라인 기부
같이가기
with kakao

기념일 기부
좋은 날, 기쁜 마음을
함께 나눠요
문의 02-6262-3082

이벤트 기부
즐거운 행사와
사랑 나눔을 함께
즐거보세요

**상담 혹은 문의가
필요하다면**
080-890-1212

계좌 기부

| | |
|-----|-------------------|
| 예금주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 국민 | 003137-04-000306 |
| 농협 | 1082-01-001966 |
| 신한 | 100-013-446845 |
| 외환 | 068-13-21097-3 |
| 우리 | 052-581567-13-101 |
| 하나 | 399-810005-31705 |



참 좋은 당신이 있어 세상이 1℃ 따뜻해집니다

아너 소사이어티는 1억 원 이상을 기부했거나 5년 이내 납부를 약정한 개인 고액 기부자의 모임입니다.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바탕으로 더 밝은 내일을 만들기 위해 참여와 지원을
아끼지 않는 사회 지도자입니다. 국내 최초 고액 기부자 모임이자 국내 최대 기부자 클럽으로,
한국형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현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나눔을 실천하고,
사랑의 가치를 창조해나가며 기부 문화 확산을 이끌고 있는 가슴 따뜻한 리더들입니다.

중앙
301호



전효강 개인 투자자

"제 기부가 홀몸 어르신들의 따뜻한 밥 한 끼, 소년소녀가장의 연필 한 자루가 될 수 있으면 정말 행복하겠습니다."

중앙
304호



강승조 이글벳 대표

"살이란 우리라는 개념이 우선합니다. 앞으로도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중앙
305호



신현각 광혁건설 대표

"고통과 슬픔은 나눔수록 가벼워지고, 희망과 용기는 더할수록 행복해집니다."

서울
297호



정예슬(주)오아이 스튜디오 대표이사

"나눔은 인간이 가진 최소한의 따뜻함입니다."

부산
198호



최효영 항도레미콘 회장

"나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의 기본을 채워줄 수 있는 마중물이 되었으면 합니다."

대구
163호



도형동 대구청맥의원장

"우리 주변에 마음과 몸이 아픈 사람들이 고통에서 벗어나 희망을 찾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광주
112호



이락승(주)백상주택건설 대표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작게나마 기여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저의 기부가 나눔문화를 확산하는 데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경기
230호



정수진

"나눔 = 행복채움. 나눔이 곧 채움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큰 행복감을 많은 분들이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경기
231호



김장사 삼남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

"저의 작은 기부가 어려운 이웃들에게 희망과 소망의 작은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강원
79호



김남동 김남동내과 원장

"아너 소사이어티 가입을 통해 지역의 어려운 계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나눔에 동참하겠습니다."

경북
120호



육만수 청학산업(주) 대표

"코로나19로 아픔을 겪고 있는 이웃들을 생각하며 작으나마 힘이 되고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전남
100호



故 박영재

"고인은 생전에 검소한 생활을 하시면서 한평생 자식을 키워낸 분이시고, 저의 유년 시절 기억 속 아버지는 이웃들과 나누며 사신 분입니다. 그런 아버지를 본받아 기부는 제게 일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경남
126호



엄상주(주)복산나이스 명예회장

"고향을 위한 조그마한 나눔이 저에게겐 살림입니다."

제주
111호



김순필 대일라이팅 이사

"나눔은 행복입니다."

경기 박성대 상고전기통신(주) 대표이사
제주 익명

〈사랑의열매〉에 따뜻한 사연을 보내주세요

지난호 독자 의견



○ '경복대학교병원 의료봉사 기사를 읽고 우리나라가 해외에서 봉사하는 것도 자랑스럽지만, 기술이 뛰어나다는 것 또한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분들의 실천이 우리나라의 국제 교류와 봉사 정신을 드높이는 데 많이 기여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어디에도 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의료진분들은 몸을 사리지 않고 당당하게 발을 내딛으며 봉사를 하시는 것이 감동적이었습니다. 늘 최선을 다하며 돕는 모습이 보기 좋았고, 조금이라도 성금을 보태고 싶을 만큼 따뜻한 기사였습니다.

- 강김단우, 경기도 고양시

○ '세상을 바꾸는 희망 풍경' 기사를 관심 있게 읽으며, 축복받아야 할 임신·출산·육아가 사회의 편견과 차별로 오히려 미혼부 여성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현실이 마음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힘이 되어주는 (사)여성인권동등감과 사랑의열매가 있기에 오늘도 생명의 빛은 밝게 빛나라라 희망해봅니다. 더불어 우리 사회가 한부모 가정과 조손 가정, 다문화 가정 등 다양한 모습의 가정을 품을 수 있는 보다 따뜻하고 열린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김지영, 경북 경산시



○ '코로나19 이후, 우리는 준비하고 있나요?' 기사를 통해 사랑의열매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에서 분야별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을 돌보고 지원하는 역할이 더 중요해질 것이며, 질병뿐 아니라 환경과 생태 위기 문제도 심각해 지원을 확대해나갈 필요가 있다는 기사에 공감했습니다. 아울러 변화된 상황에 맞춰 활동 방식을 바꾸고, 새롭게 발생한 문제의 해결 방안을 찾는 '사회백성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이러니 행보가 기대됩니다. - 조중환, 서울시 강서구



이렇게 참여하세요!

〈사랑의열매〉를 보시고 좋았던 기사나 의견을 보내주세요. 나눔에 대한 즐거운 추억이나 감동적 이야기, 〈사랑의열매〉에 전하고 싶은 말도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의견이 더욱 알차고 따뜻한 〈사랑의열매〉를 만듭니다. 참여하신 분 중 세 분을 추첨해 선물을 드립니다. 보내주시길 때에는 이름과 주소, 연락처도 잊지 마세요.
마감 일자 매월 20일 **이메일** cckpr@chest.or.kr

독자 선물

독자 의견에 선정된 분에게는 문화상품권(2만 원)과 사랑의열매 기념품을 보내드립니다.



블루투스 스피커



파우치(색상 랜덤)



안마봉

〈사랑의열매〉를 e-book으로도 만나보세요!



'사랑의열매' 홈페이지에서 〈사랑의열매〉 매거진을 볼 수 있습니다.

PC 홈페이지상단
 공동모금회 → 홍보자료 →
 출판 및 인쇄 → 회보

모바일 홈페이지 하단 회보

홈페이지 www.chest.or.kr

숨은 사랑의열매를 찾아주세요



그림 속에 사랑의열매가 숨어 있습니다.
어디에 숨어 있을까요? 사랑의열매를 찾아 인증샷을 보내주세요.

응모방법 숨은 그림을 찾은 인증샷을 SNS에 올리고 해시태그를 달아주세요.

#사랑의열매 #모두의나눔 #숨은열매찾기

사랑의열매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를 팔로하시면 당첨 확률이 올라갑니다.

당첨자에게는 커피 기프트콘을 보내드립니다.